

**법구경**  
백만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현대불교@상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윤 주 사**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상부 요가  
02-956-2460

얼레과일 푸리아 전문  
보이차, 각종 차류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 “국립공원 속 절땅 해제해달라”

조계종 문광부 환경부 등에 공문

조계종이 사찰경내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요구하며 7월 2일 통도사에서 개최한 '전국 본말사주지 결의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담은 요구서를 환경부와 문광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9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사찰 경내지의 국립공원 해제 공식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적 스님은 “요구서는 9월 8일 총무원회에서 ‘문화유산지역보존을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결의된 것으로 중장기 과제 중 실현 가능한 요구사항을 정리한 것”이라며 “10개 국립공원 내 34개 사찰(암자 포함) 119개 사찰 경내지 1억 4529만 5,984㎡의 해제 요구를 골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표 참조>.

이번 요구서에 담긴 해제요청 사찰 경내지는 가야산 경주 속리산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 월출산 북한산 변산반도 등 10개 국립공원에 속한 해인사, 불국사 등으로 전체 국립공원 면적 대비 4.3%로 사찰경내지 총합의 63%에 이른다. 총 19개 옥상국립공원 중 △사적 및 명승 지정 △사찰지 비종 30% 이상 △환경부 해제기준 부합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립공원 분류기준을 통해 1차적으로 선별한 것. 환경부는 해제 기준으로 경내지 5%이하의 국립공원과 20세대 이상의 거주지가 있는 경내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이번 요구사항을 토대로 환경부, 문화체육

국립공원	해당 사찰	공구역 해제요청 면적	사찰경내지 면적(㎡)
가야산	해인사의 22개 암자 (23개)	1850만1000(1850만)	80%
경주	불국사,석굴암,백률사,보리사,기림사,천룡사,부흥사,상선암,황룡사,골굴사,굴불사,금선사(12개)	875만1118(875만)	100%
속리산	법주사의 11개 암자 (12개)	1920만1000(1920만)	44%
지리산	회암사,천은사,연곡사,실상사,쌍계사 외 22개 암자(27개)	262만169(262만4천)	100%
설악산	백담사,신홍사의 7개 암자(9개)	407만2412(407만4천)	100%
오대산	월정사의 11개 암자(12개)	153만5524(153만)	3%
내장산	백양사,내장사의 10개 암자(12개)	2194만1934(2194만)	100%
월출산	도갑사(1개)	376만4066(376만)	100%
북한산	화계사,도선사,진관사,승가사,금선사(5개)	492만5303(492만)	100%
변산반도	내소사,개암사,월명암,실상사의 2개 암자(6개)	413만1635(413만)	100%
합계	총 119개	1억4529만5984㎡	63%

관광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수용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종단의 각 부처를 상대로 한 노력으로 긍정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0년간 각종 법적 규제와 사찰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침해 당했음에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조계종의 오랜 숙원사업이 어떻게 실현될지 우려를 표하며 주춧돌이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당선

22일 중앙총회서 선출... 25표 획득

태고종을 이끌어갈 제 24대 총무원장에 인공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태고종 중앙총회는 9월 22일 오전 10시 태고종 총무원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제100회 중앙총회를 개최하고, 제24대 총무원장에 인공 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총무원장 선거를 목적으로 열린 총회에는 의원 48명(재적 50명)이 출석했다. 인공 스님은 과반 이상인 25표를 득표했으며, 지허 스님은 16표, 대은 스님은 7표를 획득했다. 도산 스님은 투표 직전 열린 후보정견발표에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 금주의 Hot

달라이 라마 14선지식 | 원행 스님 08불자들 | 정진규 19문화

## 인정·관용으로 종교평화 이끌어야

제5차 아셈 종교간 대화 ‘대화와 희망찾기’



‘아셈 종교간 대화’ 불교방문단은 9월 23일 자원봉사자(문사수)의 안내로 봉은사를 둘러보며 도심 속 사찰의 매력에 감탄했다.

한국과 핀란드가 공동 주최한 ‘제5차 아셈(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종교간 대화’가 ‘종교간 대화와 새로운 희망 찾기’라는 주제로 9월 23-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2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종교간 대화를 통한 화합과 상생’을 주제로 한 전체 회의와 분과회의 등 본 행사가 이틀간 진행됐으며, 개회식 전날인 23일 한국 7대 종교문화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인단 14명은 봉은사를 방문했다.

아시아·유럽재단(ASEF)과 핀란드, 독일 등에서 온 참여단은 정윤선 종교자유정책 연구원의 브리핑 ‘다

종교사회 한국, 가치중립의 위기인가, 사회통합의 기회인가’에 질의응답을 하며 한국 종교계의 전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윤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지만 최근에 종교편향, 종교차별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며 “아셈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 속에서 종교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45개 회원국 대표단과 함께 교황청, 이슬람회의기구 등 관련 인사 150여명이 참가했다.

글 박선주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영봉(해중) 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세계 최고봉 16좌 가운데 10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Pikey봉. 해발 4080m를 걸어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네팔 카트만두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과 공동 기획한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봉(해중) 스님이 안내하는 이번 트레킹은 삶에 지치고 번뇌에 휩싸인 영혼에 부처님 정각의 대도량 히말라야의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가안내**

11월 6일(금)~20일(금) 15일 : 일 시 ●  
인천공항-카트만두-지리-시발라야-빈달-마일 : 코 스 ●  
리-볼볼레-Pikey 베이스캠프-Pikey 정상-준베시-빈달-시발라야-지리-카트만두-인천공항  
선착순 30명(16세 이상 가능) : 인 원 ●  
287만원(비자비 5만원 별도) : 참 가 비 ●  
국민은행 006-01-0785-361(현대불교) : 입 금 계 좌 ●  
10월 20일(화) : 접 수 마 감 ●  
10월 31일(토) 오후 3시 현대불교신문사 : 사전설명회 ●  
02-2004-8233, 017-236-5769 입연테 부국장 : 문 의 ●  
033-647-8848 영봉스님

**공동주최**  
현대불교신문사 ·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

영봉(해중) 스님은  
1990년 부처님오신날 세계최초 성직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메라픽(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안나푸르나, 킬리만자로 등 세계 고산등정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 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파 포터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